

01 교회소식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발산하는 기쁨의 향기는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편안함과 행복을 준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주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향해 참다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03 기획특집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불같은 기도와 함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끊임없이 자신을 발견하는 노력을 할 때 육신의 생각을 깨뜨릴 수 있다.

04 간증

“찬양할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금요철야 은사 집회에 참석해 기도 받은 뒤 85년 된 천식과 심장질환을 치료받고 오른쪽 어깨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진 성도들의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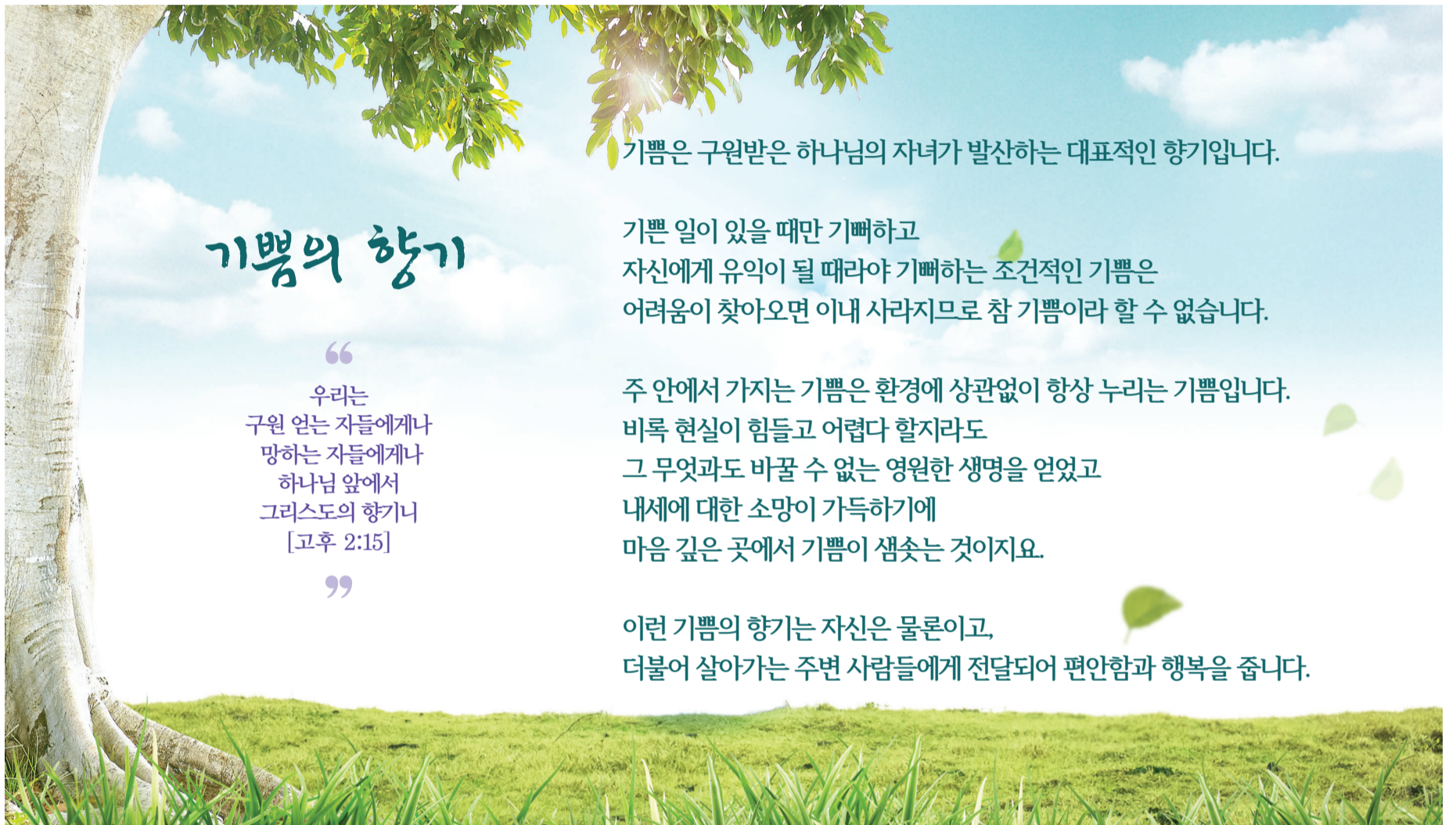
만민뉴스

제987호 2023년 2월 1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기쁨의 향기

“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5]
”

기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발산하는 대표적인 향기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라야 기뻐하는 조건적인 기쁨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내 사라지므로 참 기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가지는 기쁨은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누리는 기쁨입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에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는 것이지요.

이런 기쁨의 향기는 자신은 물론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편안함과 행복을 줍니다.

간증

“아아아! 내 허리가 펴진 것 같다! 이것 좀 보라!”

유순현 집사 (93세, 서산만민교회)

15년 전부터 허리가 점점 굽어지다 보니 늘 지팡이를 짚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가끔 허리를 펴려고 하면 잘 펴지지도 않을뿐더러 아랫배가 당기고 뼈가 아팠지요. 농사일을 많이 해서인지 왼팔도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중순 경, 우리 집 욕실에서 힘없이 폭석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로 인해 꼬리뼈 통증이 심했고, 주저앉으면서 너무 놀라서인지 소화가 잘 안되니까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 내외의 보살핌 속에 약도 먹어보았지만 좋아지지는 않았지요.

저는 큰아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자녀들과 설을 보내기 위해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나고 1월 25일, 다니엘 철야 전에 이복님 원장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고, 기도 받은 후에는 허리를

펴려고 해도 아랫배가 당기지 않았으며, 왼팔의 통증도 사라져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월 29일 주일 저녁예배 후,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 기도 받았습니다. 그때 허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딸 집에 돌아와 식탁을 짚고 허리를 펴보니 쪽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아아아! 내 허리가 펴진 것 같다! 이것 좀 보라!”고 했더니 딸도 “허리가 1자로 쪽 펴졌네요!”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90이 넘는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기도 받은 후 놀랍게도 굽은 허리가 펴짐은 물론, 아랫배 당김과 꼬리뼈, 왼팔 통증이 사라졌으며, 식사도 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라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마태복음 18:21~22)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해를 가한 상대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서 “한 번만 더 잘못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이 베푸는 관용이란 그 한계가 있어서 상대의 잘못을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허용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선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여쭙니다. 베드로는 일곱 번의 용서라면 굉장한 관용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흔 번씩 일곱 번, 즉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7은 완전수이므로 일흔 번씩 일곱 번의 용서란 완전한 용서, 곧 무한대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 안에는 정녕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더 나아가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490번만 용서해 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을 듣는 사람일지라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비진리투성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악뿐만 아니라 악들이 마음속에 있는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마 5:28 ; 요일 3:15).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음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간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

하게 하시지요(요일 1:7).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2. 회개의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8~19장을 보면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히 중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그냥 멸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살려 줄 수 있는 조그마한 근거라도 없을까 하여 직접 사자(使者)들을 그곳에 보내어 살피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일을 미리 알려 주시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 보고자 여러 차례 간청합니다. 결국 의인 오십 명에서 시작해 열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확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지요.

예레미야 18장 7~8절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악에서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리라는 뜻을 돌이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서에 용서를 거듭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악의 한계점에 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는 어떠했습니까? 이곳 역시 악이 극에 달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멸하시지 않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가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선포하자 왕과 온 백성,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며,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4~15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역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했지

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인이라고 해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왕하 20장, 대하 33장), 온전히 죄에서 돌아키면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그 죄과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시 103:12).

3.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피조물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죽이고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을지라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며 사랑의 중보기도를 올리셨습니다(눅 23:34).

여기서 ‘저희’란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희롱하던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행할 온 인류를 지칭하지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과 진리를 싫어하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빛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 죄를 범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사랑의 간구를 대신 올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반 집사는 아무 죄 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지요(행 7:60).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은 후,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면 원수 마귀 사단은 악한 자들을 사주해 방해하며 핍박합니다. 또 전도하다 보면 조롱하며 휘방을 놓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지요. 이때 예수님이나 스테반 집사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대신 용서를 구하는 사랑의 간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 설령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이라 해도 미워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중심에서 우리나라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오는 사랑의 기도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일지라도 용서하실 수 없기에 우리가 대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 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 곧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구하지 말라 했습니다(마 12:31~32 ; 눅 12:10). 성령에 참예한 후 타락하여 현저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지요(히

6:4~6).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짓는 경우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히 10:26~27).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되 우리의 마음만큼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지요.

또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대신 용서를 구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주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들

향해 참다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공의대로만 판결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라면 아무리 내게 해를 가한 사람이라도 중심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자!

사람이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굳힌 육신의 생각이나 행동 방식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기 한계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된 의와 틀까지 만든 경우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기 어렵지요. ‘의’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며 ‘틀’이란 무엇 무엇이 옳다는 생각이 단단히 굳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와 틀 가운데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면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의 문턱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같은 기도와 함께 진리 말씀에 비추어 끊임없이 자신을 발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01 기질적인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이 기 속에 깊이 감춰져 있으므로 인해 나오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기질을 타고났기에 대체로 조용하고, 성내거나 다툼 화평을 깨는 일은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머리 된 사람이 되면 상황에 따라 담대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끌어 주는 분야가 취약하지요.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과 걸리는 일도 없고 항상 상대를 선하게 바라본다는 생각 까닭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기질을 타고나서 열심이 있지만 섬김이 부족하고 상대를 더 낮게 여기며 편안하게 해주는 분야가 취약합니다.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도 ‘나는 영을 사모해야 한다. 천국을 침노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 물러서지 않으니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02 성격의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슬픔과 원망 가운데 세상을 어둡게 보고 살아온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성격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를 버리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며 달려가다가도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축복을 비슷한 처지와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이 먼저 받으면, 자신보다 앞서간다는 느낌에 초조해하거나 낙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법사에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고 질책해 기도할 기운조차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지요.

이처럼 하나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니 다른 사람

을 대할 때도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자기 의와 틀 가운데 상대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를 답답해하며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03 육체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

사람이 성장하면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통틀어 ‘육체의 결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잘 받지 못하면 성장해서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집중해 듣지 못하고, 대화할 때도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윗사람의 지시사항을 귀담아듣지 않거나 명심하지 못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마음은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지 못하니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기에 고립된 환경에서 자라서 의사소통 능력이나 교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표현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해 매사에 주변 사람의 마음을 맞추지 못하지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경험 안에서 ‘이것이 좋다.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04 환경에서 오는 충만함에 가려져 있는 육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받을 개간하는 데 소홀하면서도 자신은 늘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충만함으로 순간순간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을 덮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막상 어떤 연단이 오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할례 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성령 충만함을 소유해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05 미세한 비진리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진리로 많이 일궈다 해도 미세한 비진리까지 온전히 벗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령 조언이나 권면을 들을 때 수긍하기는 하나 순간적으로 불편한 생각이 스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0.1퍼센트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영의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99.9퍼센트가 선한 마음이기때, 또한 육신의 생각은 아주 잠깐 스친 것이기에 덮어 버리므로 미세한 비진리를 벗을 수 없고 영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06 진리의 틀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

진리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것이 옳다. 선하다.’는 생각을 단단하게 굳혔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틀에서 비롯된 생각이 들어맞는 상황도 간혹 있기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신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목자가 양 떼를 용서하고 감싸 주는 모습에 감동하여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틀이 만들어졌다면 용서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경우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과 징계가 필요한데도 선의 틀에서 나온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왼쪽 눈이 또렷하게 보이고 85년 된 천식과 심장질환이 치료되었어요”

박정희 집사 (94세, 중국 1교구)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8세 때 부모님과 함께 중국 길림성으로 이주하였습니다. 10세 때부터는 몸이 약해 백일해와 천식, 심장질환 등 많은 질병을 달고 살았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13세 때부터는 이웃의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6남매를 키우느라 남자도 하기 힘든 뉘는 일을 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지요. 50세 때는 탈곡하다가 벼알이 왼쪽 눈으로 들어갔는데, 이후 거미줄이 낀 것처럼 흐릿하게 보였고 백내장까지 생겨 왼쪽 눈으로는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60세가 되던 해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2007년 6월 78세 때 외손녀의 전도로 만민의 양 떼가 되었지요.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으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제 귀에 똑똑 들어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각종 예배와 다니엘 철야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이 행복했지요.

그러던 2022년 7월경, 제게 꿈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거의 보이지 않던 왼쪽 눈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45년 된 백내장을 치료받으니 하나님께 천식과 심장질환도 치료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9월 은사 집회에 환자 등록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GCN방송을 통해 집회에 참석해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전체 환자 기도를 받았는데, 제 삶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천식으로 인해 항상 거칠게 호흡했고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 기침이 나왔지요. 특히 왼쪽으로

누우면 기침이 더 심했기에 아예 벽에 기대고 앉아서 잠을 자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받은 뒤 아무 증상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으로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조여 왔는데, 그 증상도 깨끗이 사라졌지요. 85년 된 천식과 심장질환도 치료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질병으로 고통받았기에 평생 제가 안고 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 제게 건강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즘은 어떤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게 신기하 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늦은 나이에 만난 만큼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며 건강과 행복을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찬양할 때 시원한바람이 불어오더니 오른쪽 어깨 통증이 사라졌어요”

박상순 권사 (68세, 2대대 14교구)



2022년 4월경, 직장에서 과도하게 팔을 사용한 탓인지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밤낮 어깨가 아프니 너무나 힘들고 일상생활도 쉽지 않았지요. 잠잘 때 오른쪽으로는 아예 눕지 못했고, 잠을 자다가도 통증으로 깜짝 놀라 깨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니 ‘오른쪽 어깨 염증’이라고 하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나이가 있어서 단기간에 치료는 어렵다.”고 하였지요. 병원에 다녀 보아도 통증은 여전했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보아도 그때뿐이었습니다.

12월에는 하나님을 의지해 치료받아야겠다고 마음먹

었습니다. 그래서 1월 은사 집회를 앞두고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열심히 기도하며,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 까지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준비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잘못 살아온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순종하지 못한 분야를 놓고 많이 회개하였지요.

드디어 2023년 1월 13일, GCN방송을 통해 은사 집회로 드러진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후 회개 찬양과 기도

에 이어 성령 충만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신기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어깨 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염증으로 인한 오른쪽 어깨 통증이 말끔히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후로 통증이 전혀 없으니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잠잘 때 오른쪽으로 누워도 상관없으며, 통증으로 깨는 일이 없으니 단잠을 잘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저를 기다려 주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주님, 응답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님,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어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영사면 향관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문로 129 향야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